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제33권 32호(다해) 2013.7.7

[묵상]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주님,
제가 당신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거스르게 되고,
제가 당신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때,
끝까지 견디게 하소서.

당신을 고발하고 배척하는 이들과
관계를 그르칠까봐
외면하고 침묵하기보다는
주님,

당신에 대하여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하소서.

당신께서 직접 일러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하시나,
저의 고민은
제 안에 계신 아버지의 영이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시간이오니,
끝까지 견디는 이가 받을
구원을 위한 고민이게 하소서.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전 9: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견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여용녀 아숨파 & 정한 스테파노, 김희순 (생)배론청년회 멤버들
주 일 낮 미사	(연)윤기출 마리아, 조지 가보라, 이경용 야고보, 이현호 요한, 권복남 모니카, 이용식 베드로, 전시웅 요한, 김금점 모니카, 고준희 제임스, 김인주 마카엘 & 이달자 마리아, 심달석 (생)권오상 바오로 & 권순길 체칠리아 가정, 김평, 이운조 클라라, 유철희 바오로, 오세호 레이몬드, 정우석 루카, 김기준 안젤라, 나성흠 안드레아, 문성연 로사, 이인숙 베로니카, 이형기 베르나르도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역대기 하권(2 Chronicles) 24,18-22

화답송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채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채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오로지 주님만 믿나이다.
당신 자애로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당신 앞 피신처에 그들을 감추시어,
사람들의 음모에서 구해 내소서.○

제 2독서 로마서(Romans) 5,1-5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 음 마태오(Matthew) 10,17-22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성호경	345	108
봉헌	목마른 사슴	261	310
성체	361	282	307
파견	377	108	343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 제3부 세상을 위한 말씀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의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요한 1,18)

하느님 말씀과 세상에 대한 투신

▶ 하느님 말씀과 창조의 보전

“성경과 교회의 살아 있는 전통안에 증언되어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물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이는 신앙의 복종에 가장 깊은 근거를 두고 있는 진정
한 생태학을 촉진시키며(……)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모든
사물의 선성에 대한 신학적 감각을 새로이 자라나게 합니다.”
352) 우리는 탄복하기를 새로이 배워야 하고 또한 창조된 사
물들 안에서 드러나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아보기를 다시 배
워야 합니다.

하느님 말씀과 문화

▶ 인간의 삶을 위한 문화의 가치

109). 말씀의 육화에 대한 요한의 선포는 하느님의 말씀과 그
분께서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알려 주시는 인간
의 말 사이의 뿔 수 없는 관계를 보여 줍니다. 이러한 맥락 안
에서 세계 주교대의원 회의는 하느님의 말씀과 문화의 관계를
고찰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추상적으로 인간에게 자신을 계
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문화들에 결부되어 있는 언어,
표상, 표현들을 사용하십니다. 교회의 역사 안에서 많은 증거
들을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관계는 풍요로운 결실을 가져옵니
다. 오늘날 그러한 관계는, 상이한 문화들안에 복음화가 확장
되고 뿌리를 내리게 됨에 따라, 그리고 서양 문화의 최근의 발
전에 힘입어 새로운 단계를 맞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
엇보다 먼저 문화가 그 자체로서 모든 인간의 삶을 위하여 지
니는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측면들을
지닌 문화라는 현상은, 인간의 경험에서 구성적인 한 부분이
됩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고유한 문화에 따라 살아가고, 반면 그
문화는 인간들 사이에 역시 그들에게 고유한 유대를 형성하면
서 인간 삶의 대인적이고 사회적인 특성을 규정짓습니다.” 하
느님의 말씀은 여러 세기를 거쳐 다양한 문화들에 영감을 주
었고, 근본적인 윤리적 가치들, 뛰어난 예술 표현들, 그리고 모
범적인 생활 양식들을 이룩해 왔습니다.

다시 만나게 될 수 있기 위하여, 문화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하
느님의 말씀에 자신을 여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
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결코 참된 문
화를 파괴하지 않으며, 오히려 점점 더 적합하고 의미 있는 인
간적 표현들을 찾는 데에 꾸준한 자극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진정한 문화는 참으로 인간을 위한 것이 되기 위하여 초월에,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께 열려 있어야 합니다. <◆계속>

신부님, 신부님, 우리 김대건 신부님

지난 5월 제주교구로 성지순례 갔다가 용수성지에 들렀습니다. 성지 마당에는 작은 목선 하나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배는 길이 13.5미터, 너비 4.8미터로 한국 최초의 사제 성 김대건 신부님이 타고 입국하신 라파엘호를 복원한 것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1845년 8월 17일에 중국 상해 금가항 성당에서 조선교구 3대 교구장이신 페레올 주교님에게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주교님을 비롯한 13명의 일행과 함께 라파엘 호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런 작은 배로 망망대해를 건넌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모험으로써 하느님께 대한 굳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김 신부님 일행은 40여 일의 항해 도중, 여러 번 폭풍우를 만나 침몰의 위기를 넘기면서 9월 28일에 제주도 용수리 해안에 표착하였습니다. 김 신부님은 불과 몇 달 전에도 조선에서 구입한 라파엘 호를 타고 상해로 가는 길에서 그런 고생을 하였습니다. 라파엘 호는 1845년 4월 30일에 제물포를 출발하여 6월 4일, 상해에 도착하였는데, 사흘 동안 밤낮으로 계속된 큰 폭풍우 때문에 김대건 신부님과 동행한 신자들은 죽을 고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신부님은 공포와 절망에 사로잡혀 어찌할 줄 모르는 신자들에게 성모님 상본을 보이면서 믿음을 잃지 말라고 계속 격려했다고 합니다. 사실 성 김대건 신부님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1836년 4월, 15세의 나이로 모방 신부님에게 세례를 받고 신학생 후보로 선발되어 그해 12월 고국을 떠나 다음해 6월, 마카오에 도착하여 사제수업을 시작한 이래로 1846년 9월 16일 새남터에서 순교하실 때까지 수고와 어려움으로 점철된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형 직전에도 군중을 향해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나는 천주를 위해 죽습니다. 영

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죽은 후 행복을 찾으려면 천주를 믿으시오.”

고난으로 점철된 삶에서도 김 신부님의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조선교회에 대한 사랑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굳건한 믿음과 사랑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이들의 마음에 하느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어 환난 중에도 인내와 끈기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십니다.(제2독서)

또한 예수님께 대한 충실 때문에 박해받는 이들에게 해야 할 말을 일러주십니다.(복음)

지금 우리는 과거처럼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 없이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에 대한 도전은 항해의 노도처럼 거세고, 온갖 유혹은 보이지 않는 오랏줄처럼 우리를 움아매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제들이 더욱더 성령께 의탁하면서 김대건 신부님께 전구를 청하여 굳건한 믿음과 사랑으로 무장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위협하는 거센 파도와 힘차게 싸우고 교묘한 유혹의 올가미를 결연하게 벗어던지며 주님의 복음을 확신 있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형에 처해진 성 안드레아는 마지막 순간에도 하느님을 희망하고 그리스도를 기억하였습니다.

그는 신앙을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처럼 죽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한 줄기 빛이 성안드레아를 비춥니다. 이 빛은 하느님의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 것이다.”(루카 9,23-24 참조)

◆손희송 베네딕토 신부 /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신덕례 데레사	남성철 베네딕토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김교복 레오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이은지 수산나	권경아 요세피나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2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박희자 마리아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박진수 스테파노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최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7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 오늘(7월7일)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경축 이동'입니다.
한국 최초의 사제가 되어, 순교로 한국 교회의 기초를 놓고 모든 성직자의 수호자가 되어주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순교 신앙과 열정을 기억합니다.

- ◆ 2013년~2014년 사목위원 임명장 수여
 - 일시 : 오늘 주일(7일) 낮미사 중
- ◆ 본당 모든 봉사자를 위한 피정
 - 일시 : 오늘 주일(7일) 오후 1시~4시
 - 대상 : 사목위원, 제단체장, 소공동체 부차장/구역장/반장, 주일학교/한글학교 교장
 - 내용 : 봉사자의 은혜와 추수감사절 합동미사 준비 방안
 - 강사 : 이장환 마르티노 신부님
 - 문의 : 최기남 야고보 사목회장 ☎(310)569-3940
- ◆ 주일학교 "Praise Night"(찬양의 밤)에 초대합니다.
 - 일시 : 7월19일(금) 오후 7시 성당
 - 참석대상 : 남가주 각성당 샌디에고 교동부 신앙대회(7월 26일~28일)참가자 및 관심있는 주일학교 학생들. 뿐만아니라 청년들과 어르신 신자들께서도 많이 참석하여 격려 해주십시오.
 - 문의 : 황데이빗 주일학교 음악담당교사 ☎(310)613-9116
- ◆ 은혜의 밤
 - 일시 : 7월20일(토) 오후 8시(특전미사후)
 - 장소 : 백삼위 본당
 - 강사 : 박효철 베네딕도 신부
 - 문의 : 성령기도회 회장 강혜원 아녜스 ☎(310)780-0369
- ◆ 2013년 제26회 남가주 성령채신대회
 - 주제 :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마르코 5,34)

◆ 추수감사절 합동야외미사 주제표어 공모(백삼위 주관)
금년 추수감사절(11월28일) 합동 야외미사를 본당에서 주관합니다. 이 행사에 걸맞은 주제표어와 미사후 2부행사내용에 관해 여러교우들의 의견을 공모합니다.

- 주제 표어 : 한 문장에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 내용
- 2부 행사 : 미사후 각 성당간 친교를 나누는 2부 행사에 적합한 내용
- 제출 : 신증철 아브라함 사목회부회장 ☎(310)619-4343

- 일시 : 7월27일(토)~28일(주일), 페사디나 시티칼리지
- 강사 : 박효철 신부(청주), 임문철 신부(제주),정광호 신부(보스턴), 배기현 신부(남가주성령채신봉사회지도)
- 참가비 : \$25(본당구입시 \$20) ☎(213)435-7570
- 준비물 : 도시락과 생수는 각자 준비하십시오.

◆ 서예와 사군자에 관심있는 교우 모집합니다.

- 시간 : 매월 두번째주일과 마지막 주일 오후 1시10분
- 장소 : 2층 유아실
- 문의 : 이명렬 라파엘 ☎(310)749-0278

◆ 사목위원, 제단체장 임원명단 홈페이지로 보내주세요.

7월1일부터 2013~2014년 LA 대교구의 새 회계연도가 시작됨에 따라 우리 본당에서도 평신도 사도협의회가 새로 조직되었습니다. 성당홈피에는 사목조직도와 단체 담당자들이 올려져 있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사목회 각 분과위원들과 활동단체(소공동체, 제단체, 산하단체, 레지오마리아, 주일/한국학교)의 임원명단(e메일주소와 전화번호)을 7월14일까지 홍보분과 e메일 103skcc@gmail.com 로 보내주세요.

◆ 예비자 교리반

- 교리기간 : 12월1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 세례식 : 12월25일 성탄대축일
- 문의 : 이영석 크리스토퍼 복음화분과장 ☎(310)796-6960

◆ 친교자리 봉사 담당

- 7월7일(주일) : 소공동체(김밥 \$4)
- 7월14일(주일) : 하버/카슨1,2반(비빔밥 \$3)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인모	강태홍	구자운	권진열	김교복	김병철	성전헌금	강인모	강태홍	구자운	김교복	김찬구	나경흠	
	김성택	김찬구	나경흠	문향업	박현주	박완철		문향업	박현주	박완철	김정희	서성용	서해영	
	박정희	배대임	서성용	서해영	석순영	소성덕		석순영	소성덕	엄세중	엄정자	오세원	오현희	
	엄세중	엄정자	오명섭	오세원	오일순	오현희		윤화경	이귀분	이병우	이상곤	이영희	이일량	
	윤화경	이귀분	이병우	이상곤	이영희	이인두		이형삼	정혜영	주대중	지경수	최상만	한장환	
	이일량	이재철	이형삼	정혜영	주대중	지경수		영희가보라						
	최상만	한장환	영희가보라											
합계 : \$5,470								합계 : \$3,080						
주일미사 현금 : \$2,857.50														

공지사항

◆ 가톨릭 신앙공부(Catholicism)

전세계 여행을 통해 가톨릭이 무엇을 믿고 왜 믿는지에 대한 비디오 신앙 프로그램, 예술, 건축, 문학, 음악을 통해 가톨릭 전통의 풍부함을 보여줍니다.

- 대상 : 전신자(10주코스)
- 일시 : 7월13일(토)부터 시작,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낮 12시
- 문의 : 서정우 프란치스코 ☎(310)408-9070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일시 : 7월26일(금)~28일(주일) 참가비 : \$190
- 문의 : 황선홍 그레고리오 그룹리더 ☎(424)903-6637

◆ '주니어 걷기/달리기' 회원 모집

긴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칫 나태해질 수 있는 자녀들에게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해지도록 도움을 주기위하여 본당 마라톤 동호회가 14세 이상 주니어 걷기/달리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일시 :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장소 : 사우스 하이스쿨

- 문의 : 윤희동 안토니오 ☎(213)256-5028

☺ 축하합니다. ☺

최근 교우 다섯 가정에서 자녀의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새로 출발하는 이들 신혼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축하 드립니다!

- 고천용 & 고규재체칠리아 아들 고준석 바오로(신부 양희연)
- 김종문 아놀드 & 진희 굴룸바 아들 김희도 아나클레토(신부 안진영)
- 안종연 & 안연숙 루피나 아들 안두영 마르코(신부 심크리스틴)
- 권오상 바오로 & 권순길 체칠리아 딸 권안나(신랑 데이빗)
- 한창주 요아킴 & 안나 아들 한기웅 다니엘(신부 인혜영 크리스티나)

남가주 소식

◆ 가톨릭 예수회 성경대학 5학기

- 주제 : '초대교회의 삶과 그 영성3'
- 강사 : 송봉모 토마스 신부(예수회 한국관구)
- 일시 : 7월26,27,28일(금,토,일) 오후 6시30분
- 장소 : LA 성 아그네스 성당(버몬트 + 아담스)
- 수강료 : \$50 ☎(323)731-4433

◆ KYCR 제22차 젊은이들을 위한 성령안의 새생활 세미나

- 일시 : 8월1일(목)~4일(주일)
- 장소 : 리버사이드 Divine Word 피정센터
- 지도신부 : 정브라이언 가브리엘 신부
(한글강의와 영어강의가 따로 준비되어있음)
- 주최 : KYCR 남가주성령쇄신청년봉사회
- 참가대상 : 18세~30대 미혼/기혼 청년
- 회비 : \$160(7월20일이후 \$180)
- 연락처 : 이원록 ☎(562)688-4322

소공동체 7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차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이희정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희연 루시아 정병욱 율리아	
구역/장	번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미비안나 213-675-0498	김옥찬 수산나 213-675-0498 7/14(주일) 낮미사후
	2	김찬구 요한 701-6343	이근태 세르지오 999-5226 7/14(주일) 낮미사후 토런스 팍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7/12(금) 오후 8시 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7/13(토) 오후 6시
	2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이명렬 라파엘 749-0276 7/13(토) 오후 6시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방미숙 마리아 626-7348 7/12(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2	최순옥 스텔라 951-4710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7/9(화) 오전 11시
	3	조정선 마리아 804-7645	조정선 마리아 213-550-6653 7/12(금) 오후 7시 강당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욱 율리아 404-1607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7/21(주일) 오전 10시 텔손 팍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1/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이병우 마티노 784-0585 7/20(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P.V. 구역 합동반모임 7/13(토) 오전 11시 라이언 팍
	2	김명재 아가다 866-8778	합동 반모임
	3	정종미 클라라 818-1799	합동 반모임
	4	이귀란 아녜스 617-3568	합동 반모임

이번 주 단체 모임

본당 봉사자들 피정	오후 1시~4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제단체 모임의 날	
-----------	--

“걱정 말아라 내가 너를 찾을테니”

수도복은 어디서나 쉽게 눈에 띄는 옷입니다. 다른 이들과 구분되는 옷을 입고 다니는 덕분에 사람들로 부터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평생 결혼도 안하고 혼자 사신다면서요?” 신자가 아닌 분들이 주로 하는 질문입니다. 대신 “어떻게 수녀원에 들어가셨어요?”라는 물음은 보통 신자들 중 낯을 익힌 분들이 주로 하는 질문입니다. 종종 같이 사는 수녀님들과 모여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풀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길을 걸어와 지금 여기에서 함께하고 있음을 나누는 시간은 늘 흥미롭고 신비롭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소설처럼 극적이기도 하고, 어떤 이야기는 짧은 수필처럼 담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백이면 백 다른 색깔을 지닌 고유한 이야기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모든 이야기를 가능하게 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제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유아세례를 받은 많은 이가 그렇듯, 저 또한 신앙 귀한 줄을 몰랐습니다. 신자라는 이름만 겨우 걸고 있다가 결국 냉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막혀하는 엄마의 다그침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느님은 엄마보다는 점잖고 조용한 분이시라 그랬는지, 아니면 제가 너무 멀리 달아나는 바람에 절 잊어버리셔서 그랬는지, 아무 불편 없이 한 해 두 해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잘 서 있다고 여기던 제가 맨바닥에 첩퍼덕 넘어지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존심은 꺾이고 자존감은 흔들렸습니다. 다친 마음만 들여다보며 혼자서 끙끙 앓던 중에, 억지로 등 떠밀려 피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피정 둘째 날 캄캄한 새벽, 성경 한 구절만 켜 채 밖으로 내몰렸습니다. 침묵 중에 말쑥과 함께 머물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무 그루터기가 있는 근처 숲으로 가 앉았습니다. 가볍게 나뭇잎 뒤척이는 소리밖에 없는 새벽 어둠 속에 혼자 있자니, 정말 세상에서 내쳐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들 가버리고 혼자 남겨져 버릴 것 같아서, 또 그렇게 남겨져도 아무도 찾지 못할 것 같아서 불안했습니다. 얼마를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 문득 누군가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서움이 아니었습니다. 훈훈한 기운에 싸여있듯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살그머니 손을 뻗으면 곁에 있는 한 존재에 손끝이 닿을 듯 했습니다. 멀리서 해가 떠오를 때까지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는 새벽 해돋이 때문에, 아니면 막 깨어나는 숲의 기운 때문에 일어난 관홍이라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게는 그 새벽이 결코 잊을 수 없는,

귀하고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아무리 멀리 가 있어도 내가 널 찾으며. 난 네가 어디에 있어도 널 찾을 수 있단다. 그러니 너무 멀리 와 버렸다고, 오래 전에 돌아가는 길을 잊어 버렸다고 무서워 하지마라. 어디에 있는 내가 널 찾으며.”라고 말씀 하시는 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있는 저를 찾아내시는 하느님! 그런 하느님이 계시는 한 저는, 우리는 행복합니다.

◆신명희 엠마 / 성바오로딸수도회 수녀

☞ 길을 찾는 그대에게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는 사회의 부정부패,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왜 하느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내버려두시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 “하느님은 과연 계시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믿고, 또 우리의 삶에 하느님께서 함께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세상의 악은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혼란에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위에서 답하십니다.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제가 믿었던 하느님은 능력의 하느님이셨고, 당신의 힘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플 때 우리와 같이 아파하시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느님의 모습은 능력 이전에 먼저, 우리의 삶 가장 깊은 곳까지 함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그 외침은,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버림 받았다고 느끼는 순간, 하느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가장 나와 같은 마음으로 같이 외쳐주시는 하느님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악이 있고, 정의가 무너지는 것은 하느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믿고 사는 우리가 하느님과 같은 사랑으로 소외당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악에 맞서기 위해 나의 삶을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그분을 믿는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느님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홍성민 신부 / 부산교구 임호성당 보좌

◎ 서로 인사 합니다. ◎